



◆천태종은 지난 12일 타이호텔에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하고 한·중·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 기념 강연회

“천태의 가르침 바르게 이해 현대사회문제 해결하자”

“천태사상의 중심인 ‘一念三千(일념삼천)’의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한·중·일 천태종이 인류 상호간의 갈등과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 기념강연회에서 제시됐다.



◇오쿠보로순승경 ◇왕신 교수 ◇이영자 교수

“천태교학이론 정립 불교학 발전에 기여”

구소 부소장 왕신박사, 일본 천태종 오쿠보로순승경, 중국대 이영자교수 등 3국의 천태학자들이 강연했다. 먼저 이영자(중국대)교수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절박한 과제는 인구증가 식량·에너지고갈과 이를 수반한 환경오염과 종교현상의 다원화”고 전제하고 “중국천태종 제6조인 형제담연사의 ‘법화하는 물질은 하나의 등체’라는 티끌이나에도 불상이 존재하는 진여 중도사상에 따라 현대인류의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호주에 세워지는 한국불교도량 13만평 규모 ‘멜본 정혜사’

호주인 비구니 지광스님 불사얏장

호주인 비구니 지광(智光)스님이 한국불교 선(禪)의 진수를 보여주고 호주 불교인의 수행 도량이 될 ‘정혜사(定慧寺)’를 세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본의 ‘달스포드’에 약 13만여평의 규모로 조성될 정혜사는 앞으로는 불일국제선원의 호주본원으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혜사가 들어설 달스포드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대리석 건물이었다. 지광스님은 이 건물을 개축해 지상층은 법당과 선방으로 만들고 지하 1층은 식당으로 새롭게 단장해 정혜사로 개원할 계획이다. 이 건축물에는 현재까지 대지매입금 5천여만원이 소요됐으며 앞으로도 기존건물

수리비까지 약 2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혜사’ 건축물사에 앞장선 지광스님은 “기존 대리석 건물의 개축에 머물지 않고 별도의 수련장과 법당을 건립해 앞으로 사부대중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겠다”며 열의를 밝혔다.

지광스님은 지난 1979년 한국을 방문해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에서 약 10여년간 수행했다. 또 지광스님은 한국에서 문운사 강원 시절 교리공부를 하며 강원생들의 영아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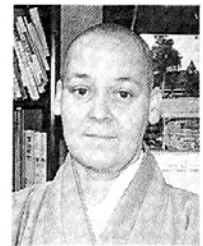
정혜사가 들어설 달스포드는 호주에서 유명한 온천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도시 ‘멜본’과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제선원



◆정혜사로 새롭게 단장될 2층 대리석 건물. 호주 멜본의 달스포드는 광활한 초원과 온천으로 유명하다.

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적으로 호조건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오중욱 기자



◇지광스님

싱가폴 연화사 개원

원명스님 2년 결실

싱가폴에 최초의 한국사찰이 개원된다. 싱가포르에 들어선 것은 원명스님을 비롯한 이곳 불자들의 불심의 결실이라고 치하하고, 한국불교와 싱가포르 불교의 원활한 교류와 이를 토대로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화엄종 약사사 대웅전 낙성

화엄종은 지난 10일 종정 구하스님 정회수 총회장의장동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본산 인천 약사사 대웅보전 및 극락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낙성법회에서 이어 정회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불도의 불교적 서원을 이루고

자 종단속원사업으로 약사사 대웅전 극락전 등을 5년분사로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에 완공된 약사사 대웅보전은 대웅보전 70평 극락전은 22평 총무소 25평 등으로 건립됐으며, 도심포교를 위한 화엄불교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일약을 담당해 줄것을 당부했다.

연건평 50여평의 현대식 단독 2층건물의 연화사에는 법당과 요사 2개 공간이 들어서 있다.

천태종 80여 세대가 신도 등록, 법회를 보고 있는 연화사는 개원에 앞서 이미 2년 전부터 지도법사 원명스님이 정소를 옮겨가며 법회를 계속 해왔다.

한편 소련포교에 앞장서 왔던 원명스님은 연화사 개원에 앞서 지난 95년 인도네시아에 ‘조계종 자카르타포교원’을 개원했다. 자카르타포교원은 현재 2백여 세대의 불자들이 신생활을 하고 있다.

종단소식

20일 종단총회 현판식

대한불교종단총회(회장 일공)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빌딩 3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02)766-4848

“천태종, 중정법과 무관”

천태종은 지난 11일 ‘대한불교종정법학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가입종단명부에 오르지 않았음을 천태종과 사정법학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정법학회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천태종은 17일 중정법학회 주최 ‘국인민복과 호국안보를 위한 불교지도자승년대법회’와 관련 교계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초청장도 종단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내에 있는 25점의 불교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조계종측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 이유가 불교문화재도 민족문화재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유물들을 옮겨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사가 돼 관리가 어렵고 도난의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이들 불교문화재가 어찌서 원래 위치로 되돌

아와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유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그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한 명우 <취재2부 기자>

대해 중앙박물관 측은 대부분 관측은 대부분 의 사람이 폐사가 돼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인사부도암사리탑(보물 928호) 등 3점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거문 사원공국사승묘탑(보물 190

방송가 소식

청주BBS 23일 시험 방송

불교청주방송이 오는 23일부터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하루 2시간 시험방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96번지 충청매일신문빌딩 8층으로 이주한 불교청주방송은 그동안 현재 시험방송을 앞두고 부도산 송신소 안테나 설치와 연주소설비공사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3일 시험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불교청주방송의 개국은 사실상 97년 1월 말~2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내정돼 있는 진흥건설 박재선사장의 불교청주방송 사장 인준 등의 문제도 시험방송이 진행되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계종 종조논쟁 다시 가열

기간 ‘다보’-심재열·정태혁씨 주장계제

조계종의 종조는 과연 누구인가? 기간 ‘다보’(통권 제20호)에서 심재열씨(원효사상연구소 소장)와 정태혁씨(동방불교대 학장)가 ‘보조스님과 태고스님의 조계종 종조론’이라는 제목하에 지상논쟁을 벌였다.

심재열씨는 ‘조계종조는 왜 보조국사인가’라는 논고에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의 내용을 인용해 서산대사가 대해종고의 간화선법을 전승한 보조국사를 당연히 종조라고 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인 간화선은 보조국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므로 보조국사가 곧 종조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은 보조국사 입적 3년 뒤인 고려 강종 2년부터 국가에서 공칭했고, 조계종을 시행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158년 뒤에 국사가 된 태고가 조계종조가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태혁씨 또한 ‘태고보우국사의 원효사상과 한국불교의 법맥’ 논고를 통해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사상의 바탕은 화엄원효사상이고 태고는 열불과 선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불교의 법맥이 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엄원효사상은 법화경의 개삼회일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나 보조는 비의 열불요문에서 열불은 비하하였으므로 원효화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태고가 가지산파의 선승으로서 가지산파의 법통만을 이은 것이 아니라 구산오계를 회통시킨 원효를 살치하여 선과 교를 회통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은>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2. 학교연혁. 3. 특전.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6-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5, 팩스511-108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 추가 및 편입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각과정). 원서접수: 1996년 12월 9일 ~ 12월 23일. 개강일시: 1996년 12월 23일 오후 5시 정각. 대학통신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탐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副學長 鄭大隱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시천지국: 전화 0593-32-5160. 강릉지국: 전화 0391-647-9317.